


눈이 옵니다.....아이들은 너도 나도 집밖에 나가 눈싸움을 하지요. 동네 강아지들까지 신이나 멍멍 짖어댁니다. 어디선가 엄마 목소리가 들려오네요. “애들아! 장갑 갖고 나가야지!” 아버지는 길이 얼어 다음날 지각이라도 할까봐 걱정입니다. 텔레비전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아버지 옆에는 행여나 학교 가는 아이들이 길에서 미끄러질까봐 걱정하는 어머니도 보입니다.....올 겨울은 유난히 눈이 오지 않아서 이런 모습들을 보기가 힘듭니다..... 농부들은 가뭄 걱정을 하지만 어린이들은 “눈 구경도 제대로 못해 보고 겨울을 보내는 건 아닌가” 걱정을 할 겁니다.....혹시나 이 글을 읽을 때 눈이 내려 온 세상이 하얗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행여 눈이 오지 않았다 해도 너무 실망하진 마세요. 책 속으로 눈 맞으러 들어가면 되니까요.

< 책 속으로 ‘눈’ 맞으러 가자! >



눈은 왜 내릴까요?
 김정흠 지음 | 유진희·이준섭 그림 | 다섯수레 | 32쪽 | 값 7,500원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 “저건 누가 뿌리는 거야?”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끝없이 내리는 눈을 보면서 “정말 하늘에 누군가 있는 건가요?”라고 소리치는 친구들도 있겠지요. 《눈은 왜 내릴까요?》는 제목 그대로 눈이 왜 내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자연 공부책입니다. ‘공부’라는 말이 들어가서 어렵게 느껴진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초롱이와 친구들도 눈밭에서 실컷 놀다가 자연공부를 하게 되는 걸요.

신나게 눈싸움을 하던 초롱이와 친구들은 멍멍이가 안 보이자 멍멍이네 집으로 향합니다. 마침 멍멍이는 눈에 관한 공부를 하는 중이었지요. 어쩌나




재미있게 공부를 하는지 “눈하고 재미있게 놀면 되지 무슨 공부냐?”고 말하던 친구들까지 멍멍이의 신기한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하늘 위는 아주 춥습니다. 솜털 같이 폭신해보이는 구름은 사실 아주 작은 물방울들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걸 얼어서 ‘눈’이 된다고 합니다. 송이송이 내리는 하얀 눈은 우리 친구들 얼굴처럼 저마다 다른 생김새를 가졌는데 막대모양, 못모양 등 다양한 모양의 결정체들이 모여 눈을 이룹니다. 눈밭에서 실컷 뛰어노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되겠지만 무조건 놀지만 말고 왜 눈이 생기는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눈사람 아저씨

레이먼드 브릭스 그림 | 마루빌 | 32쪽 | 값 8,500원



집 앞에 예쁘게 만들어놨지만 옮길 수가 없어서 집안으로 데려가지도 못하고, 데려간다 해도 금세 녹아버리고 말 눈사람. 아이들은 그렇게 녹아버리는 눈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눈사람은 모자도 쓰고, 운전도 하고, 하늘도 날아다니는 조금 특별한 눈사람입니다. 정성껏 보살펴 준 소년의 마음을 하늘이 알아준 것일까요? 소년은 눈사람 아저씨와 재밌게 놀고 음식도 나누어 먹으며 옷도 입어보는 등 매우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눈사람 아저씨와 환상적인 밤하늘 여행을 떠나는 신나는 경험까지 하지요.

이 그림책의 아름다움은 눈사람 아저씨를 정성껏 보살피는 소년의 모습에서 발견됩니다. 파스텔로 그린 부드러운 그림들이 눈사람 아저씨와 소년의 따뜻한 우정을 더욱 잘 전달해 주지요. “글자가 하나도 없네. 우리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걱정 붙들어 매세요. 어린이들은 섬세한 상황설정과 인물들의 생생한 표정을 읽어내는 ‘마음의 눈’을 갖고 있으니까요.



눈오는 날의 생일 이와사키 치히로 지음 |



임은정 옮김 | 프롬테우스 | 32쪽 | 값 10,000원

눈 하나가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 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눈이 오는 날 태어난 이 책의 주인공은 다섯 살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

다. 그런데 친구의 생일잔치에서 실수로 촛불을 끄고 나오면서 미안함 반, 창피함 반에 스스로 상처를 받지요. 혼자서 심심함을 느끼지만 지금 심정으로는 강아지도 싫고, 친구도 싫습니다. 그저 생일날 흰눈 펄펄 내려주길 바랄 뿐이지요.



눈은 차가워 보이지만 실은 따뜻한 과 포근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고 어스레 소복이 쌓이는 눈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풍요로워지지요. 이 책 속 주인공의 사소한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도 '눈'입니다. 특히 섬세한 붓놀림으로 그린 게 아니라 과감하고 시원한 면을 이용해 그린 이와사키 치히로의 동양적인 그림은 이 따스함을 더욱 극대화시켜 보여 주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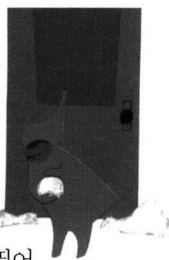


에즈라 체크츠글·그림 | 김소희 옮김 | 비룡소 | 32쪽 | 값 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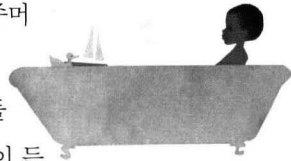
너무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운 악몽을 꿀 때가 있지요. 좋아하는 인형이 없어지거나, 100점을 맞은 시험답안지가 사라지는 꿈.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즐거운 기억을 만들어 준 눈이

한순간 사라지는 악몽을 꿈니다. 그 전날 눈밭에서 너무도 신나게 놀았던 기억을 안고 잠이 들었는데 한순간 눈이 없어지다니...

피터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는 걸 보고 외투를 입고 뛰어



나갑니다. 눈사람도 만들고, 눈천사도 만들고, 눈산을 기어올라가지요. 눈몽치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잠들기 전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잠이 든 피터. 그런데 이글이글 타오르는 해가 눈을 다 녹여 버리는 꿈을 꿨지 뭐예요. 물론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흰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답니다.



첫 눈을 만났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호기심, 즐거움, 신비감 등 다양한 감정들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너무 좋은 것을 보며 그것을 놓치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아이들의 내면 깊은 심리까지 꿰뚫고 있지요. 빨간 옷을 입고 얼른 눈밭으로 달려나가는 피터의 하루가 무척 코믹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눈사람의 재채기



노제윤 지음 | 한지선 그림 | 보림 | 32쪽 | 값 7,500원

눈이 내리는 이유를 알기 위해 산으로 떠난 용감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일 년 내내 눈이 내리는 깊은 산속 마을에 사는 아이. 아이는 눈이 내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빠 엄마에게 물어보지만 "나도 모르겠구나. 하늘 위에서 누군가가 뿌리는 걸거야"라는 대답밖에 듣지 못하지요. 아이는 직접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얀 산마루에 도착한 아이는 그곳에서 거대한 눈사람을 발견하지요. 바로 '산'입니다. 눈사람의 배꼽 부분에 아이의 집이 보입니다. 그러던 중 산이 재채기를 합니다. 그리고 함박눈이 펄펄 내리기 시작하지요. 두려움 속에서도 고개를 든 아이. 아이는 구름 때문에 눈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나게 춤을 춥니다.

이 책에서 눈사람이 상징하는 것은 '산', 곧 자연입니다. 자연과 어린이의 교감을 시적으로 풀어낸 신비스러운 이야기이지요. **추천** 김청연 기자

